

Feel the 책(4)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1할 2푼 5리의 승률로 세상을 살아가기-



화학과 03
사석필

뜬금없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보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일까? 난 프로란 이기기 위해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고 아마추어란 승패보다 즐기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프로의 세계, 정확히는 프로야구의 세계에서 전설적인 1할 2푼 5리의 승률을 남긴 팀이 있다. 바로 프로야구 원년의 팀 중 하나였던, 슈퍼스타 한 명 없던 삼미 슈퍼스타즈가 그렇다. 모두가 목표를 '우승'이라고 말할 때 독야청청 '야구를 통한 자기 수양'을 외쳤던 정말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찾기 힘든 진기록들 - 물론 훌륭한 기록들 - 을 남겼던 전설적인 팀, 이 책은 그 삼미 슈퍼스타즈와 그 마지막 팬클럽에 대한 이야기이다.

어린이에게 꿈을! 젊은이에게 낭만을!(프로야구의 초창기 캐치프레이즈), 시작은 우리나라에 프로야구가 처음 등장하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인천에도 연고팀인 삼미슈퍼스타즈가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야구 열기가 분다. 주인공은 인천의 고민 많고 똑똑하고 유난히 머리가 컸다는 한 소년으로 슈퍼스타즈의 어린이 회원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OB 베어스가 어린이 팬들에게 꿈을 가져다 주었는지는 몰라도 삼미 슈퍼스타즈가 소년에게 가져다 준 것은 전기 10승 30패, 후기 5승 35패-승률 1할 2푼 5리-의 용의주도하게 졌다고 해도 믿을 정도의 초라한 성적표였다. 아름다운 것만 보고 아름다운 꿈만 꾀도 될 나이에 소년은 흥련성 눈물을 쏟아가며 치열한 경쟁사회를 배워나간다. 그리고 그곳이 '과를 콧구멍에 꽂아 고시를 패스했다는 인천법원의 김판사'처럼 콧구멍에 과를 꽂고 사는 기이한 사람들을 위한 곳을 알게 됐을 것이다. 결국 냉혹한 프로 시스템에서 퇴출되었던 삼미를 바라보며 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 일류대라는 안정

적인 시스템 안으로 편입하고 프로처럼 열심히 일했지만 냉혹한 현실은 가정을 버리고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를 직장에서 퇴출시킨다. 이후 그는 삼미 슈퍼스타즈의 야구를 깨닫고 지지리 공상들을 모아 -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 마지막 삼미슈퍼스타즈의 팬클럽을 창단하고 삼미가 했던 야구를 재현하고자 한다.

이 책의 주제는 사실 매우 단순하다. '어려운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 즉, 간단히 말한다면 '대충 하자' 딱 네 글자로도 충분하다. 하지만 '대충 하자'라는 말이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은 내가 좀 지쳐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뉘탈까 야구용어로 표현한다면 흥분을 친다고 타석에 등장했다가 연속으로 아웃되다 이제 번트라도 쳐야하지 않을까, 몸에 맞는 공으로라도 출루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조급함에 사로잡혀있었다고 할까. 솔직히 그동안 꾸준히 앞에서 달려 왔던 나에겐 지는 것이 싫고 익숙하진 않다. 그래서인지 삼미의 야구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난 너무 한 타석 한 타석에만 집중할 뿐 정작

경기는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 점 내주더라도 결국에 승리하면 되는 것인데도.

사실 삼미 슈퍼스타즈라고해서 왜 이기고 싶고 우승하고 싶지 않았을까? 책에서도 팬클럽이 결국 해체되고 만 것처럼 어려운 공은 치지 않고 잡기 힘든 공은 잡지 않는다는 게 현실적이진 않다. 다만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관건은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 뛰지 않는 것, 속지 않는 것, 찬찬히 들여다보고 행동하는 것. 피곤하게 살기는 놈들도 마찬가지다. 속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관건이다. 미래가 중요한 만큼 현재도 중요하다. 어차피 지구도 멸망한다. 늘 그렇듯이 아니면 말구. 자, 플레이 볼이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 박민규 | 한겨레 신문사

속지 않고 즐겁게 사는 것만이 우리의 관건이다. 미래가 중요한 만큼 현재도 중요하다.

과학과 예술이 여는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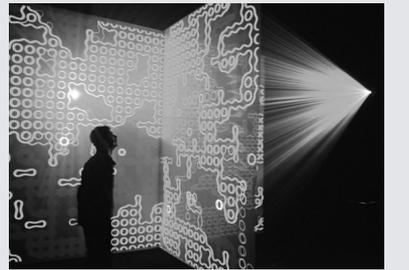
'2005 DAEJEON FAST'의 디지털 파라다이스 미디어 아트 전

대전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Digital Paradise<디지털 파라다이스>-함께 만드는 미래상'은 미디어 아트 전으로, 과학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새로운 매체 비디오 영상, 컴퓨터 등을 미술매체로 승화시켜 작가와 관객 사이의 소통의 창이 마련되었다. 관객의 움직임, 반응을 감지하고 이를 다시 이미지와 소리, 동작으로 반영하여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보는 이'와 '만드는 이'가 함께하는 전시회이다.

보통 미술관에서는 조용히 발소리조차 숨을 죽이고 천천히 작품을 감상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전시관에 들어서자 아이들 웃는 소리, 재잘되는 소리, 여기저기 발자국 움직이는 소리. 이 활기찬 소리에 호기심 가득히 작품에 이끌려 간다.

한나 하슬라티의 '하얀광장'의 하얀 바닥에 들어서면 관객 주위로 그림자들이 둘러싸 춤을 춘다.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뛰어가면 그림자들도 손을 잡는 분주하게 따라오는 등 그림자들은 관객의 행동을 반영하면서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외에도 전시장에는 더욱 더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들이 기다리고 있다. 존 맥코맥의 '에덴'은 생명체를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표현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 스크린 속 생명체들은 급속하게 성장, 소멸한다. 실제 세계의 1년을 15분으로 나타낸 이 작품은 과학적 의미와 미적 표현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눈에 띄는 작품은 미구엘 슈발리에의 'Ultra-Nature'이다. 미구엘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자연을 스크린에 담았다. 관람객이 한 곳에 서서 꽃밭을 담은 작품(스크린)을 바라보면, 그 곳에서 식물이 서서히 자라나 꽃을 피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면 피어났던 화려한 꽃들이 소멸하고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스크린 속 식물과 꽃들이 흔들린다. 마치 갈대밭 속을 거닐고 있는 듯한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생명체의 성장, 복제되고 전체 공간에 침투하는 생명이 사람의 '움직임'으로 인해 방해 받으면 소멸하는 모습을 가상의 꽃들로 흥미진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작품이다.



▲ 존 맥코맥의 '에덴': 사람이 가까이 다가 가면 스크린 속 생명체들의 수가 증가한다.

이번에 개최된 과학과 예술의 만남, 작가와 관객과의 만남은 18일까지 계속된다. 다양한 매체로 표현한 예술을 몸소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함을 느낄 수 있는 '디지털 파라다이스'. 첨단 파라다이스의 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김지혜 기자
like-morningdew@kaist.ac.kr

■ 캠퍼스 문화 캘린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0	21	22 (가)	23 (나)	24 (다)	25 (라)	26 (마)
		가계과세미나 허영호강연 인피니트	뮤즈공연 구토스공연	가계과음악회 문화행사	카이스트 합창단	다습관영화
27	28 (바)	29 (사)	30	1	2 (아)	3 (자)
	V.O.K. 가을방송제	가계과세미나 창작동화			문화행사	다습관영화
4	5	6	7	8	9	10
		신문발행				

- (가) 11/22 화요일
기계·항공과 세미나
벤처기업과 가치혁신
● 오후 4시 30분
● 기계공학동 1층
공동강의실
- 산악인 허영호 강연
● 오후 4시
● 창의관 1층
영상강의실
- 인피니트 공연
● 오후 8시
● KAIST 대강당
- (나) 11/23 수요일
MUSE 공연
● 오후 8시
● KAIST 대강당

- 구토스 공연
● 오후 7시
● 태울관 미래홀
- (다) 11/24 목요일
기계 과음악회
이카펠라 더 솔리스트
● 오후 7시
● 기계공학동 1층
로비
- KAIST 문화행사
여섯줄 공연
● 오후 8시
● KAIST 대강당
- (라) 11/25 금요일
KAIST 합창단 공연
● 오후 7시 30분
● KAIST 대강당

- (마) 11/26 토요일
마실영화제
브릿지 존슨의 일기 1,2
연속상영
● 오후 10시
● 다습관 소극장
- (바) 11/28 월요일
V.O.K. 가을방송제
● 오후 8시
● 태울관 미래홀
- (사) 11/29 화요일
기계·항공과 세미나
국가과학기술
혁신전략
● 오후 4시 30분
● 기계공학동 1층
공동강의실

- 창작동화 공연
● 오후 7시
● 태울관 미래홀
- (아) 12/2 금요일
KAIST 문화행사
당 타이손 피아노
독주회
● 오후 7시 30분
● KAIST 대강당
- (자) 12/3 토요일
마실영화제
반지의 제왕 1, 2
연속상영
● 오후 10시
● 다습관 소극장